

주와 함께

저는 한국에서 기리기 아빠 생활을 6년 동안 하다가 밴쿠버에 이민 온 지 1년 된 가장입니다.

한국에서의 기리기 아빠 생활은 처음에는 즐기기도 했지만, 시간이 길 어지면서 나중에는 웬지 주변 사람들도 저를 피하는 것 같고, 몸과 마음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교회라고 하면 그저 성탄절에 빵 나누어 주고 기도할 때 눈감으라고 해놓고는 신발이나 흠쳐가는, 그런 장난스런 곳으로 생 각했습니다. 가끔 마스크에 한번씩 오르내리는 부도덕한 목사님들의 이야기 덕분에 교회는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유교 사상에 물들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명한 산사와 암자를 찾아다니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의 취미 생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주일만 되면 저는 그 친구에게 귀찮을 정도로 같이 산에 가자고 졸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 때문에 그 친구는 주일만 되면 교회가 아닌 산사로 경배하러 같이 다녔습니다.

밴쿠버에 오자 아이들 라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만 예배당에 들어가고 저는 혼자 차 안에 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던지요. 그렇게 한 두어 번 교회까지 오다 보니, '나도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린 곳이 글래스스톤 학교 강당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한국처럼 자기 건물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던 저로서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쓰는 교회가 이해가 안 났습니다.

매시 극장에서 드린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열떨결에 포도주와 떡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던 뜨거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그렇게 즐겨 하던 술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하루 해가 지지 않는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셨던 저인데 말입니다. 회사에서의 접대 문화상 술을 안 마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저의 의지에 달려 있었겠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하루 아침에 제 몸이 술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몸이 어딘가 고장 난 줄 알았는데, 돌이켜 생 각해 보니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민 수속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마침내 마지막에 승낙된 일,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일, 이민 초기 자녀들과의 불화, 직업이 없는 소외감 등으로 힘들어 할 때 잘 못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그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옆드려 기도 드리면 바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처음엔 너무 서먹서먹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무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를 따라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아내가 한국에 갔을 때는 저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에 용기가 새록새록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얻고 열린다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낯선 교회생활에 새가족 성경공부를 통해서 도움을 주신 이 권사님과 양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활하는 저의 모습에 때로 제 자신이 놀라기도 합니다. 이제껏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삶이었는데, 주님을 알고부터는 부족하나마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 성경에 관한 많은 것들도 배우고, 좋은 분들과 교제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성령님과 늘 함께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